[2022년 3월 고1 학평 영어] 29번

우리는 보통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장 잘 지낸다.
사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낸다.
그것이 리틀 이탈리아,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과 같은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속담에서처럼, 같은 깃털을 가진 새가 함께 무리 짓는다.
이것은 우리 종이 발전한 방식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이다.
여러분이 숲에 나가 걷는다고 상상해 보라.
친숙하지 않거나 낯선 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커 여러분은 그런 것을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을 것이다.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더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LIVEWORKSHEETS